

어린이에게는 사랑을 어버이에게는 공경을...

풍성한 가정의 달 행사 마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옹호종합사회복지관은 내달 5일부터 양일간 제8회 옹호장승축제를 열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달 6일 ‘오랫차차 효(孝) 어울마당’ 행사를 갖는다. 이밖에도 부산시 곳곳에서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제8회 옹호장승축제(5.5~6일)

옹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달 5~6일 복지관 내 너른마당에서 제8회 옹호장승축제를 연다. 8회째를 맞는 옹호장승축제는 축제의 주제를 ‘우리동네 하나되는’으로 정하고 지역민이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축제 첫날인 내달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장승축제 ‘가족사랑길’을 열고 뽀로로 캐릭터공연, 마술쇼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장승그리기 대회·가족백일장·암산왕 대회·도전골든벨 등도 마련됐다.

다음날인 6일에는 다가를 어버이날을 맞아 효 한마당·장승잔치를 비롯해 벨리댄스·색소폰공연단 공연·주민노래자랑 등이 순서대로 열린다. 이밖에도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가족참여 축식게임, 가훈씨주기,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옹호노천카페를 운영해 라이브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628-6737

오랫차차 효(孝) 어울마당(5.6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규석)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내달 6일 11시 복지관에서 제3회 오랫동안 효(孝)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지역의 어르신 400여분을 모신 가운데 진행되는 이 행사는 주민공

통 ‘대연4동 돌계품물배’의 경쾌한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경성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고전무용,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돼있다.

이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의 공연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카네이션 직접 달아드리기 행사, 기념품 증정 등도 함께 진행된다. 참석한 모든 주민들에게는 점심이 제공된다. ☎647-3655

2011 숲속발레 꿈속의 꿈(5.5~7일)

김곡련발레단은 내달 5일부터 사흘간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와 엄마를 위한 창작 가족발레 공연 2011 숲속발레 ‘꿈속의 꿈’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9년간 모두 66회에 걸쳐 공연된 작품으로 지금까지 12만명의 관객이 찾아 각종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2011 숲속발레 ‘꿈속의 꿈’은 문명의 이기인 디지털로 인해 황폐해가는 인간성의 회복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성장해가는 어린이에게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전화로 예매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김곡련발레단은 부산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활동과 미래관객개발, 소외지역 찾아가는 발레 공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공헌의 장기운영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이다.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가정의 달 주요 행사

행사내용	날 짜	시 간	장소 및 문의
제8회 옹호장승축제	5월5일(목)~6일(금)	5일 13:00~22:00 6일 11:00~22:00	옹호종합사회복지관 너른마당 628-6737
제3회 오랫동안 효(孝) 어울마당	5월6일(금)	11:00	남구종합사회복지관 647-3655
제4회 남구문화큰잔치	5월12일(목)	15:00~17:0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624-1333
2011 숲속발레 ‘꿈속의 꿈’	5월5일(목)~7일(토)	5일 11:00 14:00 17:00 6일 10:30 11:30 7일 10:30 14:00 1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626-9486 010-2579-9486
염정이유씨	4월29일(금)~5월29일(일)	화~금 20:00 토 16:00 19:00 일 15:00 5/5, 10일~15시, 18시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1588-2757
제9회 을숙도 어린이한마당	5월5일(목)	10:00~14:30	을숙도 탐 공원 202-8289
2011 조선통신사축제	5월5일(목)~8일(일)	홈페이지 참조 www.tongsins.com	중구 용두산공원 광복로일원 745-7242~4
제13회 구덕골 문화예술제	5월14일(토)~15일(일)	14일 12:00~18:40 15일 11:00~18:00	구덕 아영장 일원 240-4065
제1회 금정산성 마력리축제	5월27일(금)~29일(일)	10:00~21:00	스포르타코 519-5011~3
제28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5월25일(수)~29일(일)	홈페이지 참조 www.bisff.org	해운대그랜드호텔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742-9800
제8회 초량 차이나타운특구축제	4월29일(금)~5월1일(일)	10:00~21:00	부산역 광장 및 초량 차이나타운 특구일원 466-7191
부산연등축제	5월1일(일)~7일(토)	홈페이지 참조 www.bba48.or.kr	부산역 광장 용두산공원 구덕종합운동장 867-0501~3
제38회 부산어린이날큰잔치	5월5일(목)	09:00~15:00	부산전시컨설팅센터 아사이드 보조경기장 461-4433~8
제68회 부산코믹월드	5월7일(토)~8일(일)	7일 11:00~17:30 8일 10:00~17:30	부산전시컨설팅센터 (BEXCO) 583-2470
제4회 부산항축제	5월27일(금)~29일(일)	홈페이지 참조 www.festival.busan.kr /KOR/Port	부산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일원 888-3392

☎626-9486, 010-2579-9486

구덕골 문화예술제(5.14~15일)

전통 예술의 빛과 문화의 향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구덕골 문화예술제가 5월 14일부터 이틀간 구

덕아영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꽃마를 오리축제, 자연예술제가 특별행사로 열려 봄의 정취와 문화예술의 향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산농악과 동래야류 학춤 한마당에 이어 서구 여성합창단, BS부산은행 연주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사하는 감미로운 관현악 연주도 준비돼있다.

축제 이튿날인 15일에는 초·중·고 등학생들의 글솜씨를 볼 수 있는 문예작품대회가 열린다. 이어 지난 3월,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분도리 걸림(마을을 돌며 곡식을 구걸하는 전통춤)공연도 준비돼 있다. 이어지는 주민 노래자랑에는 각 동에서 내로라하는 노래꾼들이 출몰할 예정이다.

관객이 함께하는 체험마당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으며 단체 줄놀이, 줄다리기와 같은 전통놀이, 전통탈·전통연 만들기, 부모와 함께하는 풍선아트·천연비누 만들기 등 오감이 즐거운 체험마당이 곳곳에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0-4065

사랑하는 아들에게



박해영(옹호1동)

막내인 내가 중학생이 되었으니 추억이 많아서 행복한 계절인 봄을 13번째 맞이하게 되었구나. 성인이가 태어나기 전 뱃속이 한창인 산 중턱의 조그만 절의 법당 안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호랑이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용맹스런 호랑이부터 얹혀있는 호랑이까지 아주 많은 수에 깜짝 놀랐는데 그중에 한 마리의 아주 깊은 눈빛에 완전히 매혹당해서

벅속에 있는 아기도 저렇게 선풍하고 예뻐면서도 깊은 눈빛을 가지기를 기원하게 되었다. 내가 자라면서 네 눈빛이 그때 보았던 그림의 아름다운 것과 닮았음에 매일매일 놀라고 기뻐하게 되었다.

작년 뱃속이 봉오리를 띄우기 직전이었던 때 호기심 많은 내가 간 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알레르기

인해 태어나서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길고양이를 키웠었지. 올 봄에는 매년 봄에 그랬듯이 속을 캐러 이기대에 올라갔다가 너는 흙을 만지는 것이 좋으면서 작물을 키우고 싶다고 했지. 그전까지만 해도 번거롭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땅을 것 같아서 꺼려하는 야채를 집에서 키워보는 것 까지 하나씩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얼마도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했었다.

매일 내리쬐는 햇빛을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색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듯이 엄마는 ‘성진’이라는 아들 덕분에 흙의

“만나는 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자세로 성장해주길...”

소중함을 알고,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도 잠시나마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다. 세상의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궁금해 하며 약한 이를 돕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내가 그런 작아서 놀치기 쉬운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고 있으니 너는 내 삶의 ‘프리즘’이구나!

고마운 어머니께

저를 키워주시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항상 지켜봐 주시고 무리위할 때 용기를 주시며 남들보다 긴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 잔병치레가 많아 남들보다 걱정이 더 많으셨고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많았으니 지금까지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더 굳게 성장하여 지금부터는 어머니의 일들 중에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위해서 제가 먼저 할 일은 형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며 간단한 가사를 돕고 말썽생길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오늘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은 제가 궁금증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말하면 최대한 가능한 것은 하게끔 해주셨지요. 지난해 뱃속이 피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길에 아파트 입구에 길을 잃

고 버려진 새끼고양이를 밤사이 추운 곳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알레르기가 심한 저를 위해서 사설 어머니께서 고양이를 찾아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식검색을 하고 동물병원에 전화하여 살리는 방법을 물어보셨고 서점에 뛰어가셔서 고양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책을 사서 읽고 밤새 함께 보살펴주셨기에 그때 고양이는 건

“잔병치레로 걱정끼쳐 죄송하고

받은 사랑 건강으로 보답할게요”

강해져서 아쉽지만 헤어지게 되었지요.

또 최근에 제가 농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다들 놀림을 받던 “공부나 하지?”라고 하는 편견은커녕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텃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집에 작은 텃밭을 큰 화분을 만들어 꽃과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듯,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나 자신에게 맞춰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받아들이는 너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면 나쁜 것은 골라내어 멀리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 배움으로써 익힐 수 있어서 네 앞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사랑은 만남으로 자란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아들이 만나는 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배움을 잇기를 바란다. 어느 곳에 살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관찰하고 좋은 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자.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공부 뿐 아니라 성현의 말씀이 담겨진 책을 통해서 더욱 많이 배워나가야 할 것이라 말해주고 싶다. 사실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엄마도 아직 배워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으니 함께 용기를 북돋아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보자구나.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지만 아주 작은 정의로 ‘사랑은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정신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엄마는 모두에게 자신이 있게 말할 수 있다.

아들아,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너를 사랑해!



유성진(분포중1)

경쟁자를 기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저는 체소가 무기를 해보니 햇빛의 양, 배수 및 거름까지 하나하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가득한데다가 잘 모르는 것이 많으니 겁부터 나는 것이 조금스러웠습니다.

농부라는 직업은 끝없이 인내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작물을 돌보아주어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스스로 느끼고 가능하다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도 노력할 것이나 더욱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더욱 건강해지고 씩씩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100인에게 물었습니다-어떤 선물 받고 싶습니까?

“노트북 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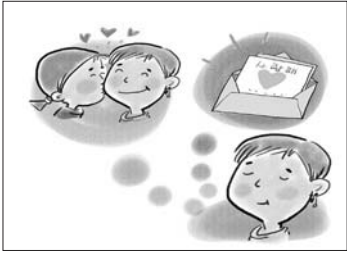
어린이는 노트북 등과 같은 전자제품을, 학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남구신문이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대연초등학교 어린이 100명과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어린이의 경우 5명 중 1명이 노트북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으며 휴대폰(17%)과 MP3·게임캐시

(각각 12%), 애완동물·게임기(각각 10%)가 뒤를 이어 디지털 시대를 실감케 했다.

이밖에도 가족여행과 책, 자전거, 문화상품권 등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전체 40%가 자녀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싶다고 답했으며 뽀빠 선물을 원한다는 대답이 19%를 차지했다. 3위는 우수한 성적표, 그 다음으로 현금과 상품권, 손수 만든 선물 등이라고 답했다.



건강검진과 건강식품, 카네이션을 꼽는 이들도 있었다.

낭비없는 음식문화 나부터 실천

가정에서

■구매시에는

- 식단계획으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합니다.
- 조리되지 않은 채 폐기된 식재료 쓰레기가 1/10입니다.
- 소포장·갈끔포장·반가공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조리·보관시에는

- 가족의 식사량에 맞게 조리하고 적당히 남깁니다.
- 식재료가 눈에 보이도록 투명용기에 보관합니다.

- 정기적인 냉장과 정리로 폐기 식재료를 줄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장은

- 기본 반찬수는 가급적 줄이고 소형찬기로 답합니다.
-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는 복합찬기를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계획적으로 구매합니다.

■손님은

- 꼭 먹을 만큼만 주문합니다.
-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합니다.
- 먹고 남은 음식은 가져갑니다.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11. 4. 1.~4. 30.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계좌이체 : 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
- 신용카드 : 신한·삼성·롯데·현대 등 모든 신용카드

납기 내 신고·납부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합시다!!

선거법 Q & A

Q.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및 선거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국내든 해외에 거주하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에 영주하든, 일시 머무르든, 외국에 거주하며 잠시 국내에 머무르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체류장소에 관계없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 19대() 선거입니다.

공명여퀴즈 : 위의 밑줄 친 답변내용중 ()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① 국회의원 ② 대통령

- 정답은 5월호에 있습니다.
- 응모기간 : 2011. 5. 10. 까지
- 응모방법
 - 이메일 : bsnamgu@korea.kr
 - 우편엽서 : 608-844 부산 남구 동계당로 267(우암동)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 응모자는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정답자를 추첨하여 위원회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② 1390
- 지난호 당첨자 : 김혜민(감만1동), 배한옥(옹호2동), 양동연(옹호1동)
- ▶정답은 5월호에 있습니다.

남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1. 4. 20~5. 9 [20일간]

■열람방법

- ▷구청 토지관리과(☎607-4752~5), 동 주민센터
- ▷구청 홈페이지(www.bsnamgu.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서 접수 : 구청(토지관리과)

■의견제출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구,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 제출

자연 영양탕 삼계탕

모든 손님들을 위해 가마솥에서 끓였습니다

자연 영양탕

621-2990

단체회식 예약환영 (주차장 완비)